

여성문화제

간

(女+女+女)

통

(通)

1998.10.12~.10.16

제 14대 자주적 여학생회

들어가며

간통?(姦通)

간통이라는 음흉한 제목을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간통, 말 그대로라면 기혼한 남성이나 여성이 자신의 혼인자 외에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에서는 간통이라는 것을 매우 불경하게 생각하죠. 세상에 가장 안정적인 기반인 가족을 파괴하는 가정파괴의 원흉적 범죄이자, 성이 들어가는 추잡한 어떠한 짓거리... 그래요, 저희는 그러한 간통같은 짓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떠받치고 있었던 가부장제라는 메이트를 과감히 저버리고 여성주의 라는 또는 여성 연대라는 새로운 우리들의 피양새와 금기시 되는 일탈의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왜냐구요? 우리는 더 이산 가부장제와 또는 자본주의와 또는 지금의 남성문화와 동침을 계속했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이라는 일상적 공포로부터, 성차별이라는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모성파괴라는 생명파괴적 행위로부터 우리자신과 우리의 당당한 생산의 권리를 지켜야 하니까요. 안정과 평화라는 허울 좋은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것이지 우리들에게는 전혀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조금은 독한년이 되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 이제 우리들도 수다를 넘어 무언가 장난을 쳐도 되지 않을까?

무언가 조금은 뒤집어져도 좋지 않을까?

나의 피양새, 그녀와의 첫번째 외출이 바로 이 여성문화제 간통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겁고 나고 하지만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어줄지 않은 걸음을 시작합니다.

많이 어색하고 나름의 고민들이 여물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비판이라는 비료제로 완성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는 말을 가름할까 합니다.

참!! ! 나의 피양새와의 여행에 여러분들이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도 좀 제대로 불러 주시길

간(女+女+女) 통(通) 이라구요!!!!!!!!!!!!!!!!!!!!

행사 일정

하나. 영화 세 마당

1. 로맨틱 영화

리빙 라스베가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10.12일 오후 5시 K201

2. 여성버디 와 남성버디

노킹 온 헤븐스 도어, 바그다드 카레

10.14일 오후 5시 와우관 세미나실

3. 동성애에 대하여

바운드 인 앤 아웃

10.16일 오후 5시 K201

두울. 강좌마당

1. 여성의 시선으로 영화보기[강사:유 지 나]

10.13일 오후 6시 K210

2. 만화에서 여성그리기[강사: 권교정]

10.15일 오후 6시 K201

셋, 거리마당

성폭력 마당

연예마당

여성실업마당

홍익여성마당

10.12~16일 학내 곳곳

넷, 다짐한마당

여성실업문제해결추구와 여성노동권확보를 위한

홍익다짐대회

10.16일 오후 1시 학관 앞

나는 여성과 남성

관계의 견보성을 믿는다. LEAVING LASVEGAS, AS GOOD AS ITGETS

왜 나는 로맨틱 영화를 좋아하는가?

고딩시절 로맨틱이라 단어만 들어도 키를 떨던 생각이 난다. 남성적 가치에 비해 평가받지 못하는 여성적 가치들-감성적, 공상적-편에 서기 두려웠던 나는, 여성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 로맨틱 영화들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남성과 같이, 절대 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항상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려운 여성들", 풀어서 벗어날 수 없는 캄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내가 왜?

로맨틱을?

리빙 라스 베가스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꽤 긴 시간을 사이에 두고 본 영화들이다. 당연히 먼저 나온 리빙 라스베가스를 먼저 보았는데, 어렵듯이 남은 기억의 궤적을 따라가보면 무척 "멋진"영화라는 막연한 생각만 든다. 로맨틱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단 말인가? 암튼 그 때는 마이크 피기스라는 감독의 이름도 모른채, 멋진 음악과 멋진 사람들이 나오는 멋진 영화라는 것을 주위에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다녔다.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것이 아니겠나? 서로에 대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전자와 전자가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었을 때 안정이 되는 것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런 것이지, 암... 이것이 내가 내린 연애와 사랑에 대한 나름의 정의였다고 기억한다. 참~

그 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보기까지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다. 여학생회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명철한 여성주의자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주변 여성들에 대한 존경심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 이후 리빙 라스 베가스를 보게 되었을 때는 복잡한 머리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세라(여성주인공)는 주체성있는 인물인가? 아니면 남성의 주변인물로써 그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천사에 불과한가?'

'가끔씩 그녀와 그 사이에 전단을 나누어 주고 있는 수녀들은 여성에 대한 보수적 이미지의 차용은 아닌가?'

'벤(남성주인공)이 외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과, 세라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독백하는 것은 나름대로 감독이 생각하는 여성과 남성의 소통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등.

등.

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 명료하게 떠오르는 하나의 장면이 있다, 벤이 세라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이렇게 되뇌인다

"나 지금 감동했어~(요)..... 당신은 대체 어디서 온 천사야(조)?"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면 세라는 눈물을 흘린다. 감동의 눈물이라고? 천만의 말씀! 그녀는 진짜 기분이 나빠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상처를 받고 말이다

오호 거참 신기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클라이 막스 부분을 아시는지? 그 영화에서 델빈(제니 콜슨)이 케롤(헬렌 헌트)에게 어림사리 사랑을 고백하며 우물쭈물 하는 말은 세라의 말을 맞받아 치는 듯 하다

“당신은 나를 변화시켜, 더 좋은 놈으로 말아야.”

케롤은 이 말을 듣고 감동한 나머지 델빈과 사랑의 키스를 나누게 되고 결국 델빈은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 그 무서운 줄까지 밟게 된다.(영화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델빈은 강박증으로 인해 도로의 선, 불력의 구획선들을 절/대/로 밟지 못한다) 아니 사랑이란 서로를 보다 좋은 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케롤과 세라는 이 두영화에서 모두 천사로 나온다.(케롤이 천사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천사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의 여정과 맺음은 이렇게 다르다니.....

나는 기본적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델빈과 케롤의 관계를 선호한다.그러나 리빙 라스베가스가 더 현실적이고 솔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구?

또..

벤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사람, 아니 어쩌되었든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 테두리 밖에 놓여 있는 사람이며 세라 또한 매매춘 여성으로써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외로움이 많다. 그러나 케롤과 벤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회귀를 꿈꾸며 소외자로 머물지 않는다. 줄을 밟아 버림으로써 해서 델빈은 정상인의 대열, 가족이라는 사회의 안전판위에 발을 올려 놓게 된다. 마지막 정사를 나누고 밟기된 성기에 만족한 작은 벤, 그의 싸늘한 시체 옆에 세라는 아직도 있는데 말이다. 과연 케롤이 얻은 행복함의 원인은 무엇이고 아직 세라에게 남은 이 참을 수 없는 쓸쓸함은 무엇인가?

케롤의 행복함은 현실을 비껴간 비집함이 있다. 케롤에게는 적어도 다른이로부터의 소외와 차별이 없다. 그녀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라는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는 “직업”이라는 보루가 있다(세라에 비해 합법적인 일이란 뜻이다). 또한 그녀는 헌신적인 어머니로서 미국중산층의 용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에 비해 세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초라한가?

이제 벤을 보자. 대화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그가 말을 지껄이고 있을 때조차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는 타락하고 추락해 버린 미국중산층이며 잔인한 체제에서 가족과 직업의 상실은 그를 차라리 라스베가스라는 환상의 한가운데로 몰아간다.

그가 고향을 쳐도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적막감 뿐이다. 그는 항상 혼자 이야기하고 관계들에게서 버림받았다. 그가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델빈을 보라! 그는 괴팍한 성격이지만 자신의 안정된 경제력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돕는다. 그는 상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개마저도 그를 좋아하는. -제발 여기서 개인의 능력이니 선택이니 하는 말은 접어두자, 어떤이들에게는 선택의 범위조차 제한돼 있다.

그녀들과 그들은 이렇게 다르고 실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특히 소수자인 여성들의 실제 삶은 리빙 라스 베가스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금을 밟아야만 관계의 틀 안으로 들

어 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벤이 선택한 것은 그들의 관계를 포기하고 새로운 관계를 건설하는 것인데 그것은 세라를 만나는 과정안에서 소외자들의 연대로 이어진다.

연대라니?

세라의 대사를 이어가자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말아, 나는 당신이 필요한 거야!”

그것이 진정한 연대이고 내가 바라는 관계의 진보성이다. 주체가 주체를 만나는 것, 현실을 바탕으로 한 솔직하고 치열한 관계..

여성과 남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환상의 틀들을 벗어 던지고 이러한 관계들을 향해 돌진해 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아마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2 를 봐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진정으로 케롤과 델빈의 관계를 동경하지만-당신은 나를 더 좋은 놈으로 만들게 해, 과연 그러한 일이 가능한 계층은 어디까지인가, 어느정도인가?-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관계의 발전이란 환상일 뿐이라는 사실을1),아스라히 들어오는 햇빛안에 조용히 앉아 있는 세라와 마지막으로 누구도 세워주지 못한 성기를- 벤은 사회에서의 소외와 더불어 발기를 하지 못한다. 그것에 대한 콤플렉스처럼 성적인 농담을 오히려 과다하게 해대지만 그는 한번도 만족할 만한 성관계를 갖지 못한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도 성폭력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주제에서 벗어남으로 크게 말하지 않도록 하겠다. 당위와 현실은 구분해야 하니까-세운 벤은 위풍당당한 관계의 생산자로 케롤과 델빈이 우회한 길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

내가 왜 로맨틱을 좋아하냐구?

그래, 그 안에는 여성이 가지는 현실을 떠난 환상의 어리석음과 동시에

여성이나름대로 꿈꾸는 관계의 상이 있으며, 그 안으로 우리들의 현실이 들어갈 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여성성의 논리로 남성이라는 낯설은 족속과 어떠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배짱좋은 꿈을 꾸게 하므로 나는 로맨틱이 좋다.

1) 근거를 말할 필요를 느꼈다. 리빙라스베가스에서 나오는 현실을 잘 보자, 그들이 누구인지가 밝혀지기가 무섭게 어떻게 버려지는가를 말이다. 그것들은 덜도 아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종속들....인 것이다.

여성버디

이 영화에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은 영화에 나타난 여성의 위치에 있다. 이 영화는 보통의 남성버디 영화에서처럼 여성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여길 못하고 오직 하룻밤을 위해 나타나거나 남성들의 눈요기거리로만 등장하게 된다. 이는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적 대상물로만 보는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남성의 시각으로 여성을 성기 중심적으로 바라본 결과라 하겠다. 여성을 비주체적으로 그리고 남성의 주변적 인물로 그리는 것은 남성 버디 영화 48시간, 러렛애포, 동등뿐만이 아니라 할리우드의 모든 영화의 공식처럼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남성버디영화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VS

남성버디



단 본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버디 영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을 위해 잠깐 버디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 일반적으로 버디영화란 성격이 비슷한 두 남자가 우여곡절 끝에 우정을 쌓아 가는 남성 동료 구조 영화를 가리킨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버디 영화는 여성은 철저히 배제된 -오직 남성의 노리개감, 소유물로만 등장하는-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다. 1991년, 그 틀을 깨고 리들리 스콧 감독이 <델마와 루이스>를 만들므로써 여성들의 우정, 자매애를 강조한 여성버디영화가 탄생한 것이다.

우린 이런 관점에서 '바그다드 카페'와 '노킹 온 헤븐스 도어'를 서로 비교해 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소 무겁게 내용이 전개되는 '바그다드 카페'는 사막 한가운데 자리잡은 작고 누추한

「바그다드 카페」를 둘러싸고 가게 주인인 흑인 여성 브랜다와 관광객으로 왔다가 눌러앉게 된 독일 여성 야스민의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두 주인공은 여성으로서의 삶의 고통으로 서로간에 유대감이 생기게 된다.

이에 반해 가볍고 재미있게 내용이 전개되는 '노킹 온 헤븐스 도어'는 뇌종양과 끝수 암이라는 선고 받은 마틴과 루디가 마지막 소원인 바다를 보기 위해 길을 떠나는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바그다드 카페에서와는 다르게 죽음으로 묵이게 된다.

영화 바그다드 카페는 여성 영화로써 무리가 없는 영화이다. 독일인 여자와 흑인 여자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줄거리는 그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본다면 사람들이 인간애를 점차 회복하는 모습이다. 독일인과 흑인 여자 사이의 우정이 카페를 활기롭게 하고 그 곳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사막 속의 카페, 그 곳을 단지 하잘 것없는 구멍가게 정도로 여기면서 사람들은 지나가고 대화 또한 사막처럼 황량하고 서먹할 뿐이다. 그러나 그때에 남편과의 결별과 함께 두 여자는 '홀로되었다'라는 비슷한 위치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권태롭고 신경질적인 흑인 여자에게 독일인 여자가 먼저 다가가게 된다. 먼저 낯 방을 청소하고 카페 안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녀의 모습은 여성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대변해 준다. 그 속에서 나오는 두 여자의 남편들은 거의 필요 없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흑인 여자의 남편은 무능함을 나타낸다. 사막의 한 카페에서 나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녀의 남편은 부인을 전혀 도울 줄을 모른다. 스스로도 나태함에 빠져 있는 불쌍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흑인 여자는 무능한 남자를 쫓아내기에 이른다. 흑인 여자도 분명 신경질적이지만 이것은 남성의 무력함, 여성이 충분히 혼자 설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잠깐 잠깐 나타나는 사막의 하늘에 있는 두개의 태양, 그것은 독일인 여자가 카페로 향할 때, 남편과 결별 후 보게 된 그 모습은 신기루라는 환상 속에서의 그녀의 바람, 즉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나타내게 했는지 모른다. 결국 영화에서는 두 여성의 과격적이고 유쾌한 생각으로 카페라는 조그만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 낸다. 카페는 트럭 운전사들이 지나가다 들리는 휴식처이며 그곳에는 여성이 자리잡고 있다. 곧 휴식과 안락이라는 편안함이 여성과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영화 속에서는 두 여자 사이의 차이를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흑인과 백인간의 갈등이라든가 유럽과 미국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동등한 여성과 여성의 만남을 그려내고 있기도 하다. 어찌 보면 페미니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여성이 변화하고 같은 위치, 공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려 했는지 모른다. 영화 바그다드 카페에서 가장 큰 갈등은 사회적인 굴레, 즉 독일인 여자가 여권의 기한이 만료되어 잠시 카페를 떠나야 하는 것이다. 막 카페의 분위기가 변화된 그 때에 그 둘을 막는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여권의 기한 만료라고 나타나기는 하자만 둘은 사회적 제한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된다. 비록 나중에 독일인 여자가 영구 국적을 가지게 되지만 영화 속에서 가장 큰 위기를 표현했다.

영화 바그다드 카페는 여성 버디무비의 대표적 영화로 남자 여자 상관없이 보아도 따뜻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이다. 여성들의 자립 사회적 갈등, 그들의 영향력 등을 잔잔한 음악과 은유적인 장면 (부메랑을 던지는 장면이나 독일인 여자를 그리는 화가의 모습, 카페 안에서의 마술쇼) 들과 함께 보여주는 페미니즘 영화라고 볼 수 있다.

천국의 문을 두드리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노킹 온 헤븐스 도어'는 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농담처럼 그려내고 있는 버디 영화이다. 이 영화의 사건 전개는 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가볍게 다루기 위해서 였는지 다소 이야기 전개가 현실적이지 않다. 위기 상황을 뒤집는 것도 유머를 통한 대목들이다. 위기 상황에서 마틴이 루디를 인질로 가장하는 대목이나 차를 얻기 위해 무슨 특수임무 요원처럼 둘러대는 대목들이 그러하다. 그런 탓인지 군데군데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의 묘미이기도 하다. 죽음을 앞둔 들의 마지막 삶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행복한 여행은 계속 되고 그 들을 쫓는 블랙브라더스?는 명칭 하기도 하고 귀엽게? 까지 느껴진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죽음을 가볍게만 그려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천국」의 상징적 상징 -천국이란 말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이미지로 느껴지지만, 죽음의 어두운 이미지로도 느껴짐- 과 같은 두 가지 느낌이 동시에 나타난다. 영화 내내 나타나는 유머를 통해 희망의 이미지를, 또 순간 마틴에게 엄습하는 고통으로 죽음의 어두운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은 영화에 나타난 여성의 위치에 있다. 이 영화는 보통의 남성버디 영화에서처럼 여성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서질 못하고 오직 하룻밤을 위해 나타나거나 남성들의 눈요기 거리로만 등장하게된다. 이는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남성의 시각으로 여성을 성기 중심으로 바라본 결과라 하겠다. 여성을 비주체적으로 그리고 남성의 주변적 인물로 그리는 것은 남성 버디 영화-48시간, 리틀뱀존,동등-뿐만이 아니라 할리우드의 모든 영화의 공식처럼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남성버디영화에서 성의 대상화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까지 여성버디와 남성버디를 비교해보면서 드는 생각은 영화 안에서도 아니 영화 안에서 더욱 여성의 성적대상화 자본에의 귀속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이러한 틀들을 깨고 여성도 당당한 주체로서 영화 속에 한 인격으로 그려지는 세상이다!!!!

여성주의적인 면에서 본 두 영화의 모습... 이렇게 보자!

동성애 가장 금기시되어 온 사랑이야기.그리고..여성.

바운드

가장 여성다운 것이 승리한다?!

바운드는 동성애 영화다.

동성애는 현재 어느 사회에서나 소외받는 사랑의 방식이다.그러나 이 영화는 동성애라는 비주류적인 동성애를 주류적인 것과 동등하게 다루고 있다.특히 동성애 사회에서도 소수인 레즈비언의 사랑을 그렸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매우 독특한 맛을 풍긴다.게다가 이 레즈비언은 너무나 공식적으로 레즈비언의 팬과 부치(여성적인 레즈비언과 남성적인 레즈비언)의 모습을 확연하게 비교하여 그리고 있다.그러나 이 영화는 동성애 영화라기보다 페미니즘영화다.

바운드에 나오는 두 여자-코키와 바이올렛은 매우 강하면서도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코키는 하수도 고치는 일을 하면서 혼자 살고 있으며 (이렇게 볼 때 현대적인 의미에서 가장 이상적인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그녀는 적당히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며 적당히 현명하고 적당히 독립적이다.) 바이올렛은 자신이 가장 쉽고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정부-을 선택해서 살고 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평온한 삶은 한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진다.그 사건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두 여자가 만난 것이다.이 두 여자가 만남으로 인해서 이 영화는 시작한다.영화는 이 두 여자가 사랑을 시작했고 또 그 여자들이 자신들만의 사랑을 지켜나 가길 원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쫓고 있다.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인 남성은 당연히 이 영화에서 죽음이나 그저그런 엑스트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이 영화가 뛰어난 각본이나 연출,제작진을 가지고 있는가?그렇진 않다. 왜 우린 이 영화를 볼 수 밖에 없는가?간단히 말해서 이 영화는 현대 서구에서 변화고 있는 페미니즘적 요소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그 이유에서 우리는 이 영화를 보아야만 한다.

바운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동등한 권리뿐 아니라 동등한 위치,동등한 대우등등 모든 면에서 동등하길 바랬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했다.그 결과 나타난 여성상은 과거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나타난 여성적인 모습이 아니라 남성화된 여성에 가까웠다.그리고 남성과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모습을 한 여성은 여성주의 운동의 승리라고 여겼다.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현대에 와서 많이 바뀌었다.그 모습은 바비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단순한 금발의 미녀였던-동시에 세계 모든 남성들의 동경의 대상이었던-바비는 그 이미지를 바꾸

어서 이제 일을 하고 자신의 집과,차를 가지고 있으며 데이트대도 자신이 당당하게 계산을 할 줄 아는 주체적인 여성이 되었다.그래서 바비의 외면이 남성화되었나?그렇진 않다.우리가 흔히 보는 대로 그녀는 여전히 육감적인 금발 미녀다.이건 무엇을 나타내는가?서구에서의 페미니즘 운동은 변하고 있다.이제 단순히 남성과 "똑같아"지는 수준은 탈피하고 있는 것이다.이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매력을 재산,재능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개발시켜 남성과 대결하고 있다.그러한 모습이 이 영화,바운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영화에서 나타난 변화하고 있는 페미니즘을 보자.이 영화 마지막에서 코키와 바이올렛은 훔친 돈 때문에 위기에 처한다.바이올렛을 구하기 위해 코키는 바이올렛의 집에 침입한다.그녀는 권총을 들고 있다.그녀가 권총으로 승리하는가?그렇지 않다.그녀는 결국 권총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힌다.-남성의 힘에 굴복하는 장면이다.하지만 그녀는 탈출하고 도망간 바이올렛은 전화로 미키에게 속고 있음을 말하고 구원을 청한다.-절대 구원을 요청할 상황은 아니었다.그녀는 이미 안전한 엘리베이터안에 있었으므로.왜 미키는 돌아왔는가?그것은 바이올렛이 전적으로 여성이었기 때문이다.보호해야만 할.그녀가 과거 페미니스트들이 경멸했던 연약함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그녀가 정부를 죽일 때 그녀는 무엇때문에 그를 살해했는가?바이올렛은 코키를 사랑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그를 죽였다.그녀는 자신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옷차림을 하고 권총으로 그를 살해했다.여성성이 남성성을 이기는 순간이다.결국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코키와 돈을 가지고 떠난다.그녀는 조직으로부터 벗어난다.그녀의 여성성과 연약함,그리고 그것을 연기한 지극히 여성적인 모습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였다.이 영화에서 코키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지만 그 이유를 과거 페미니즘적 요소의 배제라고 볼 때 그 결과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너무나 당연하게 페미니즘 영화다.현대 페미니즘의.

인 앤 아웃

사랑하는 여자...그리고 어머니...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성들.

이 영화는 게이의 자아성찰과정을 코믹하게 그려낸 영화이다.자신이 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커밍아웃하기까지의 과정이 심각한 주제에 비해 매우 재미있게 표현되어있다.그러나 그렇다고 동성애가 비하적으로 그려져 있지는 않다.(그러나 동성애자를 조금은 비하적으로 부르고 있기는 하다.Sissy boy등의 전통적인 동성애자의 모습을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동성애자를 비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긍정적이고 서정적으로 그려져 있다.그러나 단순히 이 영화가 동성애만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다.하지만 이 영화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하워드의 약혼녀의 그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 우린 이 영화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우선 하워드의 약혼녀를 보자.그녀는 바운드의 코키와 바이올렛의 캐릭터를 섞어놓은 듯한 여성이다.그녀는 독립적이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그녀는 선생님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32kg이나 뺎 정도로-자신의 외모때문에 싫어할까봐-여성적이기도 하다.동시에 살을 뺐 사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녀가 매우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이다.우리는 결론에서 그녀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결혼때까지 그저 약혼자의 취향과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따랐던 그녀는 결혼식에서 자신의 약혼자를 때려눕힌다.자신의 족쇄가 되었던 원인을 무너뜨린 것이다.-이 영화에서 남성은 가부장적인 전형적인 남성이 되고자 노력한다.그것이 남성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확실히 이 영화에서 남성은 그리 강한 캐릭터로 나오지 않는다.그렇지만 에밀리에게 있어서 하워드는 가부장적인 남성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었다.-그녀는 "결혼"이라는 자신의 목표에 충실하였으며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자신이 능력이 닿는 한 모든 일을 수행했다.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얻게 되는데 그 타이밍도 매우 인상적이다.그녀는 자신이 최상의 모습-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는 웨딩드레스를 입을 상태-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은 그녀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말한다.여성에게 남성의 기준을 적용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과거 가부장적인 남성의 모습과는 매우 판이하게 다르며 그녀 또한 그녀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남성에게서 행복을 찾는다.그녀는 사랑이라는 여성의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행복이라는 그녀의 목표를 성취한 것이다.

하워드의 어머니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그녀는 과거의 여성이다.남편에게 충실하고

가정에 헌신적인 전형적인 전통적 여성상인 것이다.그렇지만 그녀는 동시에 현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그녀는 자기 주장이 확실하다.-물론 결혼문제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그녀는 아들이 결혼식장에서 자신이 게이라고 밝혔을 때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다른 어머니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러한 아들을 인정하고 아들의 결혼식을 포기했으며 오히려 다른 여성들과 웃고 넘어가 버린다.그녀는 그런 면에서 매우 강하다.또한 결혼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들의 결혼식이 무산되자 자신의 결혼식을 만들어버리는 과감한 결단성과 목표를 향한 추진력도 가지고 있다.그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람들앞에서 "레즈비언"-사실은 아니지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지고 있다.그렇다고 그녀는 아들을 너무 감싸고 있는가?하워드가 마마보이라는 질문이지만 관객은 No라고 대답할 것이다.하워드는 부모를 사랑하지만 의존적이지는 않다.그녀는 나름대로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자식을 키웠으며 과거와 현대의 연결고리으로써 과거 페미니스트들이 지양한 모습과 현대 페미니스트들이 지향하는 두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인 앤 아웃은 페미니즘 영화는 아니다.그렇지만 우리는 이 영화에서 여성의 두 전통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에 녹아나는 현대 페미니즘-바운드에서 언급되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재능을 심분 발휘하는 멋진 여성-적 여성을 발견할 수 있다.그리고 그러한 모습에서 우린 진정한 Happy Ending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우리 시대 섹스와 사랑 공청회

고정희

막이 열리면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무대 위에 조명이 내린다.
로큰 대표로 나온 여자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마이크를 쥔다.

사회자/
지금으로부터 오늘날 서울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섹스와 사랑 문제 공청회를 열기기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과 사랑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하지 못한 여자들의 아하지 못한 성과 사랑 이야기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가계각층 아한 여성대표와 아하지 못한 여성대표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공청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먼저 초청 강사들의 삼분 발표를 듣기로 하셨습니다. 조심해 선생 나오십시오. (나온다)

발제 1 / 여자는 네 가지 모습이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 아하지 못한 여자라서
이 자리에 불려 나온 모양입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귀신 씨나락 까먹던 시절에
아한 여자뿐이 거의의 여자들을
방둥이 흔들게 한 적이 있지요
이에 흥분한 남자들이 한쪽에서
아한 여자란 (남자에 잘 웅한다는)
웅덩이 여자나, 아니면 (남자가 궁한)
궁덩이 여자나로 일을 올리니까
본전 찾고 싶은 한 남자 앞,
아한 여자란 (항기로운 방자) 방둥이를 흔드는 여자라 하여
무미더 방숭이 줄줄이 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아무튼 제 사전에 아한 여자란 없습니다
여자는 대중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까요

그 첫째는 자아 의존형 여자입니다
머릿속에 하늘 같은 남자밖에 든 게 없는 여자
남자가 인생의 주인이고 운명이고 섹스이고
선택과 결정의 전부인 여자, 그러하여
어려서는 아버지가 커서는 남편이
늘어서는 다들이 인도하는 삶에
해마라기하는 여자
이런 여자를 나는 A형이라 칭합니다
둘째는 자아포기형 여자입니다
머릿속에 상처밖에 든 게 없는 여자,
시계마늘을 늘 과거로 과거로 돌려놓는 여자,
머뭇뭇은 외로움이 증오로 변하여
만사람이 미움이고 매신의 화신이라
개 사랑을 사람 사랑하듯 하며

자제중 심실에서 나을 줄 모르는 여자,
이런 여자를 나는 B형이라 칭합니다.

셋째는 자아긍정형 여자입니다
세상이 두 쪽으로 갈라진다고 해도
같은 한눈 팔지 않는 여자
여자다운 모성본능 알뜰히 챙기고
자기 할 일 하자없이 살뜰히 해내며
미모와 지성미도 웬만큼 갖춘 여자,
만사성쾌가 다 지 할 탓에 있다고 믿는 여자,
그래서 안락으로 인정받으며 직장에선 승전도 무리없이 하는
여자
이런 여자를 나는 C형이라 칭합니다

넷째는 자아독립형 여자입니다
내 삶, 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여자
집살림 정치살림 벼슬 허무는 일에
내 일 네 일 안가리고 뛰어가는 여자
때로는 떠무니 없는 오해도 받지만
한소리 웃음으로 되돌려주는 여자
주눅든 사람이면 기를 살려주고
욕마른 사람이면 갈증을 풀어주며
둥이 주운 욕습물이 곁에 서 있는 여자
이런 여자를 나는 D형이라 칭합니다

우리는 조금씩 이 네 가지 모습 어딘가에
부분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때로
장자리에선 A형을 달았다가
가사노동하면서는 B형도 달았다가
거울 앞에서는 C형을 달았다가
이런 모임에서는 D형으로 해마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민은 하나,
어떻게 A형과 B형을 청산하고
C형과 D형 사이 홀로서기 할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

사회자/
네, 여성운동이 한 세기동안 고민해온 주제를
단 삼분간에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반기를 드실 분이 많은 줄로 아오나
진행상 토론을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아한 성과 사랑 일파를 듣기로 하셨습니다
섹스와 사랑 수다협회 대표 마주해 여사 나오십시오

발제 2 / 섹스가 무어나고 묻거든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의
바람끼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서초동 금파르 단지에서
팔자에 없는 감루 하나를 썼는데
그게 '섹시한 여왕벌' 출세다
한마디로 아한 여자다 이거지요
잔뜩 추켜세운다고 불인 이름 같은데
사실은 여자 미애가 담긴 이름이지요
못 수렁이 날아들어 주가 오른다 해도
여왕벌이란 무엇이나,
임신하고 새끼친 다음 지 살 지가 물어해쳐
땡, 하고 죽는 신세 아닙니까?
더구나 섹시한 여왕벌이란
본전이 사투지는 이름이지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지적으로 머리 굴리는 것 꿈에도 모르
지만요
저도 알 것은 다 압하요)
이런 미애를 그냥 가슴에 눌러든 채
기왕 나왔으니 한마디 합시다

오늘의 토론거리가 섹스와 사랑이라니,
어느 여자문제 시에 표현한 것처럼
'여자식으로 책을 뿌렸다가
남자식으로 추수하는' 우리 보통 여자들에게
섹스와 사랑이란
여자 사합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다,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유행가 운을 따라 풀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게
사랑이 무어나고 물으신다면
섹스의 씨앗이다, 말하겠어요
섹스가 무어나고 재차 물으신다면
(요즘 주부공부방 유행어를 빌어서)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의 바람끼다, 말하겠어요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의 바람끼가 무어나고 또 물으신다면
성기 홀리는 기술이다 말하겠어요
성기 홀리는 기술이 무어나고 거듭 물으신다면
단물 올랐을 때 한 남자에 기둥 박자, 이겁니다
듣기 좋은 말로 "금슬 좋은 부부끼리"
가족 계획협회 말로
"오르가즘 구별없고 한 남자에게 만족하자" 이러 어떻습니까?

아 천하고금을 막론하고 섹시한 여자 앞에
부처님 가운데 토막 어디 있으며
단물 다 빠진 마누라 앞에
낮팍 팔팍 떠는 남편 어딿어요
개밥에 도토리 인생 누가 정겨웁니까
그러니 한 남자 길들이기, 아니
한 남자에 목매달기에 온 인생 바치기
이건 정말 눈물나는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 주부들을 식자층은 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집단' 이라나요?
보이고 들리니까 주눅이 들어서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산통만 깨지 않으면 참는 인생이지요
이 가운데 그래도 한가닥 희망이
여성지 대서특필 운을 받아
'나는 사랑받는 아내' 프라이드입니다

솔직히 파놓고 말하건대
사랑이 어떻게 이기적이 아닐 수 있어요?
섹스가 어떻게 '개인만족' 아닐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인생은 사랑이고
사랑은 섹스,
섹스는 단물이다, 모든 남녀는
단물에 푹신다
비디오 힘을 빌려서라도 단물 만들기 총력전,
이건 정말이지 엄숙한 생존전략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산통만은 깨지 맙시다
안 그러면 나 거리로 나았어요?
책임지시겠습니까?

사회자/
각자 길을 가되 서로 산통만은 깨지말자, 네 매우 복합적인 그
러나 정답이 없는 삶의 고백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성 노
동자운동에 몸담고 있는 나가자 최장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발제 3/ 관상개기 혹은 껌질밧기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어느 사랑 사전에 살펴봤더니
'여자는 사랑을 사랑해서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서 사랑을 사랑하고' 고 써어 있더군요
알에 아한 분의 말씀의 요지가
모든 여자는 사랑을 사랑해서
한 남자에 목매달기로 완성된다는 뜻 같은데,
저는 좀 비정하지만 그 사랑하기 산통 좀 때고 내려가겠습니다

요새 낙동강 오염 사건으로
세살 먹은 어린이도 긴장해 있지만요
'사랑'이란 두 글자처럼 악종 오염이 없는 생 실습니다
낙동강 오염이 생명 오염이라면
사랑 오염은 정신 오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 일생 좀먹는 이 책은 사랑이
어찌하여 오천년을 굳게 머리는가,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면밀하게 계획된 어용 기업
국립사랑 주식회사의 독점음모이지요
양반사회 여자 읍아면 현모양처 혼령이 그 음모 하나라면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에선
<사랑받는 여자> 꿈이 그 음모 들어지죠
사각모 쓰고 발가벗은 남편 발 컷기는 몸종노릇도
사랑적식회사 광고문만 붙이면 광홀경이 되고
손깃 부정부패 이기주의 축재도
가족사랑 스티커만 붙이면 순애보로 관속합니다
알사람 말을 받아
<사랑이 섹스의 씨앗>이라면
<홍동가는 사랑의 낙원>이겠네요?
섹스가 단물 오른 남녀 모습이라면
기생파리는 꿀을 천국이었네요?
여보세요, 우아한 하녀노릇 관상 좀 껌시다
자기미하 가면 좀 벗어버립시다.
지 땅에서 지 알곡 거두는 인생
일하는 여자로 돌아가와요

거기 눈물있고 사랑있고 통지있어요
 사랑다운 삶의 나눔,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우열없이 평등하게 일을 나누고
 나 괴로움 내 괴로움 어려운 일 나누고
 분단 모순 계급모순 성모순 뿌리뽑아,
 통일해방세상 탄탄대로 닦는 일,
 이게 진짜 자식사랑 아닙니까?
 아직도 그 놈의 정실정조대 치마 속에 하고 다니시는 분,
 아직도 사랑과 광시도로 인생 허비하시는 분,
 아직도 사랑척식주식회사 시녀노릇 하기에 갈증이 없으신 분,
 오늘 이 마당에 허튼 냇 물아내고
 여자 모습 되찾기 바랍니다

청중/

"사랑 정조 척결하고 여성해방 앞당기자"

"섹스 매춘 몰아내고 민중 해방 쟁취하자"

사회자/

네, 시간이 흐름수록 손에 땀을 쥐게하는

토론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회과학도들에 의해서

민족공동체 회복의 상대장벽을 손꼽히고 있는

성모순 - 분단모순 - 계급모순이

여자라는 두 글자에 다 들어있으니,

여자, 멀고도 외로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높은 장벽의 붕괴를 확신하면서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남성해부발제를 듣겠습니다

남성학 연구가 여친구 교수 나오십니다

성폭력! 도대체 무어가?

성폭력, 특히 대학 내 성폭력을 이야기 할 때 서울대 신정휴 교수 성폭력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1) 그 때 나는 고등학생이었고, 피해자가 1심 승소가 난 것을 같은 여성으로 내심 반겨했던 기억이 난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 사건 때문에 수업시간마다 그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셨는데 내용은 주로

- 야! 선생님여 학생을 가르치려면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있기 마련이지. 안 그러냐?
 - 아여들어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그러는거지. 내가 너희들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것도 성폭력여냐?
- 세상 참 무서워졌다.

등등의 내용들이었다. 그 때에는 선생님이라는 권위에 눌려서 그런가 보다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러한 상황들이 옳지 못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어떠한 행동이 성폭력일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누구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나, 그녀가 겪은 상황들, 성폭력의 정도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수업을 듣고 있던 아이들도 피해자의 입장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보다는, 어떠한 상황이든 이러한 말들은 성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돼 성폭력의 개념이 객관성이 결여된 우스개 소리로나 다룰 수 있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들은 피해 여성들에 대한 개인적 신상들을 구설수에 올리고 있는 곳이 고작이다. 그 여성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감한 채 말이다.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접근은 성폭력이 성차별과 같이 이야기 될 수 있는 평등권에 관련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자극적인 소재인 "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가해자와 특히 피해자와 관련된 추문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게다가 또 다른 성희롱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 야! 나중에 술취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에 따라오지말라.
- 여자조고들 무서워서 어디 고용하겠나?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야 하고...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여성의 교육받은 권리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으로써 전형적인 성희롱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성폭력 예방책으로 떠들어대는 옳지 못할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은 성행위 혹은, 성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자극적인 소재가 아니라, 성차별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모든 인간이 성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절대적 권리차원에서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성폭력이라는 것에 성이라는 특수한 부분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른 차별모순과 구별되는 성모순이라는 측면들- 꼭 들어가야 하고, 우리 나라에서 그나마 성폭력이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것도 이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잘못된 성의식 토대-불건적 의식-가 강한 우리 나라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파괴하고 성폭력의 논의의 틀을 변질하는 악효과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1)서울대 신정휴 교수 사건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우리 나라의 현실은 항상 이렇다. 성폭력이 일어나면 가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지만 피해자의 사생활은 철저히 파헤쳐진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사건인데 모두들 우조교의 이름과 그녀는 알고 있지만 신정휴라는 이름조차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거리 한마당의 성폭력 마당에 성폭력 지수 놀이를 한 번 해 보시길.
평등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실천의 한 걸음을 댈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점수를 받길 원한다면 위의 글들을 잘 읽어보면 된다*^^

이러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신앙적(?) 믿음은 사랑이라는 관계를 다른 관계와는 다른 차원으로 느끼게 하고 실제 많은 사람들 -연예를 하고 있지 않은들-의 타인들-은 그 관계를 암암리에 인정한다. 그들은 기존의 모든 관계에 우위 하는 특수한 관계를 공인 받고, 심지어 몇 십년동안 친구로써 모든 걸 다 아는 그 녀(그 녀석)도 그를 위해 그녀와의 약속을 깨는 것을 이해해 준다. 이 특수한 관계들은 일상 안에서 무소불위의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한 사람을 좌지우지한다. 이 안에는 오로지 “나” 만이 존재한다...

과연?

신기하게도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고민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커플들 사이에서의 생기는 문제도 비슷하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는 연애초기, 그가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지만 솔직히 그가 나를 실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든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자신 감정의 묻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중간쯤에는 그는 내가 그를 배려하는 것만큼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 듯 또 내가 모르는 많은 관계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범하지 못하는 그만의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는 듯 하고 등등등.... 나중에는 신체접촉에 대한 고민들과 친구들과 연인사이의 관계조정에 관한 문제 등등..

이러한 공통점이 존재하는 이유들은 무엇인가?

여성성으로 명명되는 많은 것들을 남성들은 자신의 연인에게 기대한다.

"여자들은 이슬만 먹고사는 줄 알았는데" 우스개 소리이지만 남성이 여성에게 가지는 환상의 한 단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성에 대한 극과 극을 달리는 이분법적인 환상들은 남성자신들도 연애 과정 안에서 분열하게 만들고 여성들 또한 연애 자체에 대한 환상에 억눌려 그나 자기 옆에 있는 어떤 남성의 하나라는 점, 다른 남성과의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연애에 대한 지나친 특수화를 스스로 조장한다 고나 할까?

연애라는 공간에서 여성과 남성은 마치 정해진 배역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역할들을 찾아간다. 그러한 이미지들은 대부분이 어디선가 본 듯한 것들인데 대부분 대중매체와 자본들이 끊임없이 생산하는 연애 환상장치와 한 장면들이다. 그 안에서 그러한 위치들을 점한 여성과 남성은 일정정도 통과 의례적인 연애절차를 밟게 되는데, 처음엔 매일 전화하기, 영화 같이 보기부터 시작해서 기념일 챙기기, 이벤트를 만들기, 등등 연애의 인륜지 대사를 치르게 된다. 드라마에서 본 멋진 곳들을 찾아가고 사진을 찍고 은밀한 시간을 갖고 이러한 전형적 시간들이 시들해 지고 더 이상 할 것들이 없어졌을 때 당신은?

그리고 나서 제일 위에서 나열했던 단어들을 다시 보자, 그것은 사랑에 대한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서술들인가? 나는 그 안에서 평소와는 다른 어떠한 모습이었나? 연애라는 공간은 여성에게는 자기가 교육받아왔던 여성성들을 실습하는 장소, 남성들에게도 남성성을 실현하는 장소로써 사회적 교육의 결정체가 드러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적 환상기제들이 만들어낸 모습들과 내 안의 실제 존재하나 숨어져 왔던 한 괴물의 모습.. 그 사이에서 치열한 맘앓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절대로 우리들의 사회적 장치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모습과 그가 바라보는 나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일치할 수 없다. 그는 당신이 다른 누구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무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결코 특별히 착한 남성이나 착한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 속에서 이야기되는 남성성, 여성성의 그물 안에 꼼짝도 못하고 잠혀있는 사람들 안에 그와 내가 서 있음을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연애는 관계의 진실성을 얻을 수 있다.

관계의 진실성?

저 위에 있는 단어들을 솔직하게 다시 써 내려가 보자.

답답한, 치열한, 이해 안 되는, 힘겨운, 놀라운, 그리고 보다 딱딱한 용어들이 따른다.

노력, 논쟁, 싸움, 화해, 인정, 파괴, 변증, 공유.....

아무튼 연애 공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선행하여야 할 것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환상을 깨는 것일게다

현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신규여성실업자의 현실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수위가 높아져가고 있으며 노동부 통계도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여성 노동자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0.2%의 감소세를 보여 6.2%감소한 남성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통계수치가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것과 여성노동자의 62.7%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 여성노동자수는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리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 하반기로 예정된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인해 또다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감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의 유형은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입니다.

여성노동자, 특히 기혼이나 장기 근속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압력은 여성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조건, 저임금, 불안정 고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들이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하면 퇴사 압력을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리해고 후에 기혼 여성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강제 전환하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 둘째 여성집중 직종, 부서의 퇴출을 통한 여성노동자들의 집단적 해고입니다.

우리 나라 노동시장 구조상 성별직종분리가 분명하고 여성들은 단순·하위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손쉬운 퇴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측은 해고 이후 용역회사로의 재입사를 유도하여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성의 집단해고 경향은 사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특히 노동조합도 없는 대다수 여성 사업장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퇴사 과정에서도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퇴사압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들에게 낮은 직분으로서의 전직과 퇴사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어 이제껏 힘겹게 쌓아올린 여성노동자의 평등노동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모성보호 관련 휴가의 무급화와 강제 반납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신규 여성실업자들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차별적인 고용관행은 경제위기를 틈타 강화되고 있으며 군복무가산점 제도의 도입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학력 실업자에 대한 고용창출 수단으로 대기업과 공기업 중심의 인턴 사원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턴 사원제는 노동강도는 정규직원과 같으나 저임금은 물론 정식발령에 대한 보장도 없는 제도입니다. 신규여성실업자의 노동권과 노동가능성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어 내년이면 그 수가 4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 3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 수립 촉구대회 요구안

지난 15일 노동부가 50대 그룹과 금융기관 공기업에 대해 여성노동자 고용안정을 촉구하였다는 보도를 접하였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실행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대책 없이 실업자가 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바라기는 어려울 일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으로 인해 여성 노동력의 비정규직화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대량실업국면에서 여성노동력이 주변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와 국회, 각 정당의 강력한 행정적 조치와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지금이야말로 현장내 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불법, 탈법적으로 진행되는 고용조정과 이로 인한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에 보다 강력한 대책을 수립,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가장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은 고용유지정책임을 거듭 강조하며 인원감축 중심으로 일관하는 구조조정정책 기조를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인원감축 없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정규직을 해고하거나 명예퇴직 시킨 후 임시직으로 재 계약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강제전환하며, 정규직을 해고한 후 용역회사로의 재입사를 강요하는 등 여성노동력 전체를 비정규직군으로 내모는 기업주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조정의 1차적 대상은 하위 직종의 여성 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최근 진행되는 여성집중 직종과 부서의 우선적인 퇴출을 방대하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 경제위기에 편승한 각종 모성보호제도의 후퇴를 반대하며 불법적으로 모성보호수준을 악화시키는 기업주에 대하여 단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 부당한 해고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고 압력을 받는 단계에서도 진정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에 대한 불이익 없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근로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반 차별을 엄단하고 비정규직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모든 노동 관계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대 사회보험을 공평하게 적용 받도록 행정력을 대폭 강화하고 일용직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을 동일하게 적용 받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 경제위기에 편승한 각종 부당 노동 행위와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정부는 임금체불 발생 및 처리건수를 매달 공개하고 임금체불로 입건된 기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신규여성실업자의 현실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 비가시화 되는 신규여성실업자 군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통계의 발표를 촉구합니다

-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시장 진출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불법적인 차별채용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합니다.

- 공공분야에서 신규여성실업자를 위한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고용창출방안의 수립을 촉구하며, 여성고용할당제를 적극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차단하는 군복무가산점제도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 정부의 실업대책 추진위에 신규실업자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 신규여성실업자를 위한 무료직업훈련의 전면 확대를 촉구합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여성노동권확보를 위한 대학연대